

김영록 지사 “한전공대 부지 최소 130만㎡ 돼야”

이현빈 설립단장 만나

규모·정원 등 확대 검토 요구

김은경 환경장관엔

흑산공항 조기착공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전공대 축소 논란과 관련, 한전 측에 “한전공대 부지는 최소 130만㎡ 이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흑산공항 건설 제동에 대해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만나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0일 전남도청을 찾은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으로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진행 상황을 전해 듣고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이 단장은 최근 불거진 설립시기 지연·규모 축소 등에 대해 광주시와 나주시·전남도 등을 차례로 방문, 한전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 지사는 “공기업이 대학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풀어가지 않고 자꾸 어렵다고만 하면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외부에 비친다”며 “일을 진행하면서 ‘어렵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야 강한 추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한된 규모로는 대단위 연구·실험시설이 들어갈 수 없으니 확장 가능성과 미래에 필요한 적정 규모를 고려해 부지는 최소 130만㎡(40만평)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공대는 애초 150만㎡ 규모로 설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최근 용역 과정에서 40만㎡가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지사는 또 학생 정원과 관련해서도 “1000명은 예상보다 축소된 느낌이 있다”며 “한전공대를 세계 우수 대학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일반대학 수준의 검토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한전공대 설립이 국정과제인 만큼 공기업으로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한전의 기술력 제고

라는 내부적 필요성도 있다”고 한전 측의 설립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 지사는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만나 흑산공항 건설 등 환경 관련 지역현안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열린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 순회 토론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김 장관에게 “흑산도 등 낙도지역 교통기본권 보장, 서남해안 해양주권 수호,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흑산공항을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흑산공항 건설에 필요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도 영산강 지류·지천 완충 습지 조성, 영산강 수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섬진강유역환경정 신설, 가뭄지역 식수 전용 저수지 축조, 취수원이 없는 진도 조도 급수운반선 건조,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 대책 마련 등 모두 8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민생관련법안 관심 가져달라”

청와대 5부 요인 오찬

이개호 장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10일 청와대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이 그동안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 의장의 취임을 기념해 김영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위원회장 등 5부 요인을 초청,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 의장은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 대법원장 역시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법부의 제도 개혁 등 기타 여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현재소장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늘 심기일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선관위원장도 “문 의장이 취임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보완되지 않고 있는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다”며 “이런 기회에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일반 농가, 축산 농가, 과수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오는 데 제사상 물가에 비상이 걸리지 않도록, 장바구니 물가가 압박 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장관에게 “지역구가 농촌인데다가 지역 행정에 밝고, 국회에선 농해수위에 있어 농민 관련 법안만 100여건 발의할 만큼 농업 전문가”라며 “농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 청문위원회에게도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와이즈멘 100년’ ... ‘변화의 100년’ 기틀 다지다

국가 인정·후원한 첫 대회

‘여수선언’ 초안 마련 성과

덴마크서 2020년 대회

제73차 국제와이즈멘 여수 세계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폐막했다. 다음 세계대회는 오는 2020년 덴마크 오펜세에서 열린다.

‘Yes, We Can Change!’(변화로 새로워지다)를 주제로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세계 73개국에서 3000여명(해외 300명, 국내 2700명)이 참가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대회 기간인 9~12일 엑스포컨벤션센터를 찾은 인원은 9만여명으로, 박람회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는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도 유효할 전망이다.

이번 여수 대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의 관심을 끌었다. 국가가 인정·후원한 최초의 와이즈멘 세계대회로 기록됐다. 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보내 “변화와 희망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

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국제와이즈멘 수장으로 공식 취임한 여수 출신 문상봉 국제총재(IP)의 글로벌 리더십이 돋보였다. 문 총재는 앞으로 남은 10개월 임기동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국제와이즈멘의 위상과 역할을 드높이는데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여수 세계대회 개최에 맞춰 국내·외에서 각종 기념사업이 펼쳐져 국제와이즈멘의 이름을 알렸다. 해외에서는 라오스 YMCA 창립, YMCA회관 및 청소년프로그램센터 건립, 와이즈멘 문화동산 등을 조성, 기증했다. 국내에서는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공원에 회원들의 자발적 기금 모금으로 기념탑 ‘Y’를 건립, 와이즈멘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와이즈멘과 여수의 운명적 만남을 기렸다.

세계 25개국 120여명의 청소년 대표들이 참석한 국제 와이즈유스대회도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여수에서 동시 개최됐다. 이는 국제와이즈멘 미래인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서로 우의를 다지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 희망·새 사람·새 미래의 화와 희망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



제73차 국제와이즈멘 여수 세계대회가 1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사진은 9일 열린 개회식에 앞서 국제와이즈멘 회원국들이 국기를 앞세워 입장하고 있다.

/여수·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준비하는 좌표가 담긴 ‘여수선언’ 초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 참가자들은 6개 분과(청소년육성, 지역사회봉사, 확장육성, 메넷, YMCA, 국제의료봉사) 주제 토론과 종합 토론을 통해 국제와이즈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방향과 활동과제를 도출했다. ‘여수선언’은 내년 2월 ICM(국제의원회의)에 정식제도로 상정돼 공식 발표하게 된다.

도을 김용욱 교수, 해민 스님, 조승연 작가 등 수준 높은 강연과 문화예술 공연은 참가자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었다.

문상봉 국제총재는 “여수 대회는 지난 100년의 활동을 공유·성찰하고, 미래 100년의 좌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행사였다”며 “국경과 이념,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 국제와이즈멘이 소통하고 하나됐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융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연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